

칠레

국가신용도 평가 리포트

2014. 2.

| | |
|--------------------|----|
| I. 일반개황 | 1 |
| II. 경제동향 | 2 |
| III. 정치·사회동향 | 7 |
| IV. 국제신인도 | 9 |
| V. 종합의견 | 11 |

I. 일반개황

| | | | |
|----------------|---------------------|------------------------|------------|
| 면적 | 757천km ² | GDP (2012년도) | 2,682 억 달러 |
| 인구 (2012년도) | 17.46 백만명 | 1인당GDP (2012년도) | 15,360 달러 |
| 정치 체제 | 대통령제 | 통화단위 | Peso(Ps) |
| 대외 정책 | 경제실리외교 | 환율(US\$기준) (2012년도) | 486.47 |

- ▷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인구 7위, GDP 규모 6위의 상위중소득국(upper middle income country)으로 중남미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국가 중 하나임.
- ▷ 구리 등 풍부한 광물 자원,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및 대외개방정책 실시, 우호적인 외국인투자환경 조성 등을 통해 지난 20년간 견실한 성장세를 기록함.
- ▷ 2010년 남미국가로는 최초로, 중남미 국가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OECD 회원국이 되었으며, 2012년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와 함께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을 결성하여 중남미 신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e |
|------------|------|------|------|------|-------------------|
| 경제성장률 | -0.9 | 5.7 | 5.8 | 5.6 | 4.4 |
| 재정수지 / GDP | -4.1 | -0.4 | 1.4 | 0.6 | -0.7 |
| 소비자물가상승률 | 1.5 | 1.4 | 3.3 | 3.0 | 1.7 |

자료: IMF.

□ 수출 및 소비·투자 등 민간부문 증가 등으로 2014년 4.5%의 경제성장률 시현 전망

- 칠레는 구리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광산업이 발달하였음. 2012년에는 2010년 발생한 지진피해 복구사업 지속, 인프라 구축 및 지속적인 FDI 유입 증가에 따른 총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5.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3년에는 광산, 전력 부문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 확대 및 농수산물 수출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구리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증가세 둔화 등으로 전년대비 둔화된 4.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4년에는 세계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출과 소비·투자 등 민간부문 증가로 4.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법인세 인상 등으로 2014년 재정수지 적자 감소 전망

- 2012년에는 인프라 투자로 인한 정부 지출 지속 증가, 구리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0.6%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함.
- 2013년에는 구리가격 하락세 지속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대선·총선 등으로 인한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GDP 대비 -0.7%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4년에는 신정부의 사회보장 지출계획 등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인상 조치 등을 통해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0.2%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금리 등을 통한 거시경제정책으로 3% 수준에서 안정적 변동

- 2012년에는 내수회복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강화되었으나, 중앙은행의 긴축통화 정책 실시(기준금리인상: '10.1월 0.5%→'11.1월 3.25%→'12.1월 5.0%)와 폐소화 강제 지속으로 물가상승률은 3.0%를 기록함.
- 2013년에는 경제성장률 둔화로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전년대비 1.3%p 하락한 1.7%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13.1월 5.0%→'13.10월 4.75%→'13.11월 4.5%), 환율상승 등으로 2013년 말 물가상승률(11월 2.4%, 12월 3%)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2014년 물가상승률은 3%를 기록할 전망이다.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광물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로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

- 칠레 총 수출의 80% 이상이 광물이며, 이 가운데 구리 수출이 50% 이상을 차지함. 특히 중국이 칠레의 제 1 수출대상국으로 중국의 구리 수요에 큰 영향을 받음. 또한 칠레 광산의 노후화, 임금 등 비용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저하도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2012년 기준 주요 수출대상국: 중국(23.9%), 미국(12.1%), 일본(10.6%), 한국(5.8%)

□ 제조업 기반 상대적으로 취약

- 수입 자유화 등 급진적인 시장 개방으로 국내 제조업이 성장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칠레는 광업 위주의 1차 산업 중심에서 제조업 발전단계를 건너뛰어 바로 3차 산업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음

- 칠레의 1인당 GDP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16,000달러선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되나, 소득격차는 여전히 큰 편임. 2013년 OECD 조사에 따르면, 칠레의 10분위 배율(최상위 10% 가구의 평균소득/하위 10% 가구의 평균소득)은 2010년 기준 28.5(OECD 회원국 평균 9.4), 상대적빈곤율(빈곤선 미만인 인구의 비율)은 18%(OECD 회원국 평균 11.1%)를 기록하였으며, 지니계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0.501을 기록함.

나. 성장 잠재력

□ 세계 최대 구리생산국

- 칠레는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의 34%를 생산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구리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요오드, 몰리브덴, 초석, 리튬 등 광물자원이 풍부함. 이들 자원은 지표면에 가까이 매장되어 있어 채광의 경제성까지 갖추고 있음.

□ 발달된 금융시스템

- 칠레는 중앙은행 및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Council)의 관리 하에 안정적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융부문 자산 규모가 GDP의 200%에 육박하는 등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별도로 은행·연금·보험 각각의 감독기관(SBIF, SP, SVS)을 두어 적극적인 관리·감독 체제를 유지함.

- 세계경제포럼의 2012년 금융발달보고서에 따르면, 칠레는 금융발달 평가에서 총 62개국 중 29위, 중남미에서 1위를 기록함. 칠레는 특히 은행부문 안정성이 높고 국가채무불이행 리스크(sovereign debt crisis risk)가 낮아 금융안정성 항목에서 높은 평가(7위)를 받음.

□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 등으로 중남미 제2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국

- 투명한 정부정책,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 건전한 거시경제환경 등으로 인해 칠레는 2012년 기준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 제2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국이 됨. 특히, 광업, 전력 등 인프라 부문에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2년 25억 달러 수준이던 FDI 유입액이 2008년 155억 달러로 급증한 후 2012년 사상 최대인 303억 달러(GDP 대비 11.3%)를 기록함.

* 對 칠레 FDI 유입액: 129억 달러('09년)→154억 달러('10년)→229억 달러('11년)→303억 달러('12년)→214억 달러('13년 추정)

다. 정책성과

□ 경제개방 지속으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안정되고 견실한 성장세 지속

-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을 탈피하여 시장원리에 기초한 민간주도의 성장정책을 추구함으로써 경제성장, 고용, 국내저축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대규모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져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양호한 경제성적을 보이고 있음.

○ 거시경제 안정과 더불어 정부규제의 투명성, 의사결정의 예측가능성 등이 칠레 경제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비즈니스환경, 국가경쟁력, 경제자유지수, 부패 등 각종 국가순위지표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양호함.

- 비즈니스 환경순위: 34위/189개국(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4)
- 국가경쟁력 순위: 34위/148개국(WEF,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3-2014)
- 경제자유지수 순위: 7위/178개국(헤리티지 재단, Economic Freedom 2013)
- 부패인식지수 순위: 22위/177개국(국제투명성기구,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3)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e |
|-------------------|--------|--------|--------|---------|-------------------|
| 경 상 수 지 | 3,518 | 3,224 | -3,283 | -9,497 | -10,065 |
| 경 상 수 지 / G D P | 2.1 | 1.5 | -1.3 | -3.5 | -3.6 |
| 상 품 수 지 | 15,360 | 15,634 | 10,544 | 3,422 | 2,262 |
| 수 출 | 55,463 | 71,109 | 81,455 | 78,277 | 77,099 |
| 수 입 | 40,103 | 55,474 | 70,911 | 74,855 | 74,837 |
| 외 환 보 유 액 | 25,284 | 27,816 | 41,932 | 41,636 | 41,124 |
| 총 외 채 잔 액 | 73,139 | 84,452 | 98,741 | 117,776 | 136,290 |
| 총 외 채 잔 액 / G D P | 42.6 | 38.9 | 39.3 | 43.9 | 48.8 |
| D S R | 21.8 | 16.3 | 16.9 | 21.5 | 23.3 |

자료: IMF, EIU, OECD(CRAM).

□ 구리가격 하락으로 상품수지 흑자 감소, 다국적 기업의 해외송금으로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칠레는 구리 등 광물을 주로 수출하고 석유 및 관련제품 등을 수입하고 있음. 2012년에는 2011년 하반기부터 구리(칠레 수출의 50% 이상 차지)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출은 감소하고 주요 수입품인 원유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수입은 증가하여 상품수지 흑자가 전년대비 대폭 감소(약 68%)한 34억 달러를 기록함.

○ 2013년에는 구리가격 하락세 지속으로 인한 수출 감소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어 22억 달러를 기록함. 2014년에는 칠레 폐소 약세로 인한 구리 수출 증가세 전환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다소 증가하여 33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 국제구리가격(런던금속거래소 3개월물, USD/ton): '10년 말 9,665 → '11년 말 7,662 → '12년 말 7,989 → '13년 말 7,371

○ 상품수지가 소폭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다국적 기업의 해외 송금으로 인한 소득수지 적자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구리가격 하락세로 인한 상품수지 흑자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는 2012~13년 GDP 대비 각각 -3.5%, -3.9%로

확대됨. 2014년에는 상품수지 흑자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3.8%로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 민간부문 투자확대로 외채규모 증가 추세이나 외채상환능력은 양호

- 광물 및 인프라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로 2013년 말 기준 칠레의 총외채잔액은 GDP의 48.8%로 증가함. 또한 구리가격 하락 및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과 D.S.R.(총수출액 대비 외채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각각 4.8%p, 1.8%p 상승하는 등 외채관련 지표가 전년대비 악화됨. 그러나 단기외채는 2011년 313억 달러, 2012년 275억 달러, 2013년 270억 달러로 감소하는 추세임.
- 원자재 호황, FDI 유입 증가 등으로 2011년 외환보유액이 전년대비 약 51% 증가한 419억 달러를 기록함. 국제 구리가격 하락으로 2012~13년 외환보유액이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3년 말 외환보유액이 총수입액의 4.5개월분인 411억 달러(단기외채의 152%)에 달하고, 지속적인 FDI 유입으로 외환 유동성이 풍부하여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수준임.

III.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안정

□ 중남미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국가

- 2013년 11월 대선에서 야당연합(Nueva Mayoria)의 중도좌파 미첼 바첼레트 후보가 가장 높은 득표율을 차지하였으나, 과반 득표 미달로 실시된 12월 2차 선거에서 62.2%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2014년 3월 취임할 예정임. 칠레는 1990년 피노체트 군부 독재 종식 이후 안정적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확립하였음.

- 바첼레트 대통령 당선인은 2006~10년 칠레 첫 여성 대통령을 역임하였으며, 칠레 민주주의 발전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퇴임 당시 지지율이 85%를 기록함.

* 바첼레트 대통령 대선 공약 주요 내용

- (교육개혁) 무상교육 확대, 교육의 질 향상 등
- (조세개혁) 법인세율 인상(20% → 25%) 등
- (정부개혁) 정부 조직 및 의회 개혁
- (헌법개정) 1980년대 피노체트 군사독재 시절 제정된 헌법 재정비

□ 정부 개혁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 예상

-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는 사회당, 기독교민주당, 민주사회당, 급진당 등의 야당연합의 승리(상원 21석/38석, 하원 67석/120석)로 여야 교체에 성공하였으나, 바첼레트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 의원수에는 미달하여 향후 정부 조직 및 의회개혁 등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예상된다.
- 그러나 칠레는 실용주의적 중도정치와 사회적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고, 다수정당 난립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이 여당 또는 야당연합을 구성하고 있어 양당제 성격의 안정적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교육개혁 요구 시위

- 지나치게 높은 학비, 공교육의 질 저하 등으로 촉발된 2011년 학생들과 시민단체의 교육개혁 요구 시위로 교육부 장관 2명이 경질되는 등 칠레에서는 교육개혁 문제가 최대 이슈임. 2013년에도 교육개혁 시위가 이어졌으며, 교육개혁 문제는 2014년 3월 취임하는 바첼레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안 중 하나임.

3. 국제 관계

□ OECD 31번째 회원국 가입으로 칠레의 위상 강화

- 칠레는 2010년 1월 11일 남미 국가로는 최초로, 중남미 국가로는 멕시코에 이어 두번째로 OECD회원국이 됨. OECD는 성명에서 "칠레를 OECD회원국으로 승인한 것은 거의 20년간 이루어진 민주적 개혁과 건전한 경제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이라고 밝힘.

□ 주변국과 원만한 관계 유지하고 있으나, 페루 등 일부 국가와 국경문제로 갈등

- 2012년 6월,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와 함께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을 결성하여 신경제블록을 형성하였으며,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의 참여국임.
- 미국, EU 등과는 FTA 체결 이후 경제 통상 관계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또한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하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등과도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등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강화에 힘쓰고 있음.

* 칠레의 FTA 체결현황(발효일)

- 북미: 캐나다('97.7), 미국('04.1)

- 중남미: 멕시코('99.8), 코스타리카('02.2), 엘살바도르('02.6), 파나마('08.3), 페루('09.3), 콜롬비아('09.5) 등

- 아시아: 한국('04.4), 중국('06.10), 일본('07.9) 등

- 기타: EU('03.2), 호주('09.3) 등

○ 다만, 아르헨티나와 천연가스 수입 관련 갈등, 볼리비아, 페루와의 국경문제 등 잠재적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對 아르헨티나) 2004년 아르헨티나가 에너지 위기로 칠레 앞 천연가스 수출을 축소함에 따라 발전용 천연가스를 전량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하는 칠레가 전력난을 겪으면서 양국간 갈등이 발생한 바 있음.

- (對 페루) 칠레와 페루는 해양경계선을 둘러싸고 100년 이상 갈등을 지속해 옴. 2014년 1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양국간 해양경계선 분쟁에 대해 페루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해외자금 조달이 원활하며, 외채상환태도 양호

○ 신흥시장 외환위기 여파로 한 때 해외차입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현재 국제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며,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하고 1990년 이후 IMF의 자금지원을 받지 않고 있음.

※ 리스케줄링 실적: 1985~90년 사이 채무 주식화 방식(debt-equity swap)으로 외채를 재조정하여 약 100억 달러의 채무 부담을 경감한 바 있음. 한편, 1982년 중남미 외채 위기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부가 보증하지 않은 민간 은행 외채 67억 달러의 지급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등 대외신인도 유지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왔음.

2. 국제시장평가

각종 신용평가기관에서 중남미 최고의 신용등급 부여

- 칠레는 효과적인 재정통화정책, 정부의 투명성, 금융부문 안정 등을 이유로 Moody's, Fitch 및 S&P로부터 각각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Aa3, A+, AA- 등급을 부여 받고 있음.
- OECD는 칠레의 안정적 거시경제환경, 안정적 정치체제 등으로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신용등급을 2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음.

※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 순위

- OECD: 2등급('12.6) → 2등급('13.10)
- Moody's: Aa3('10.6) → Aa3('13.10)
- Fitch: A+('13.1) → A+('13.10)
- S&P: A+('10.12) → AA-('12.12)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USEXIM: 최고부보율 적용
- ECGD: 최고부보율 적용
- Hermes: 단기 전액인수가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우리나라 최초의 FTA 체결 국가로서, FTA 체결 이전 양국간 교역 규모는 16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FTA가 발효된 2004년에 교역 규모가 전년대비 67.7% 증가한 26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이후 71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對 칠레 해외직접투자는 2013년 9월 기준 총 144건, 3.2억 달러(누계)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로 광업(72.6%), 도소매업(17.3%)분야에 투자하고 있음.

<표 3> 한·칠레 교역규모

단위: 억 달러

| 구분 | 2011 | 2012 | 2013 | 주요품목 |
|----|------|------|------|----------------------------|
| 수출 | 24 | 25 | 25 | 구리, 과일, 해산물, 제지, 화학제품, 포도주 |
| 수입 | 48 | 46 | 46 | 석유 및 관련제품, 전기전자제품, 천연가스 |
| 합계 | 72 | 71 | 71 |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의견

- 칠레는 주요국과의 FTA체결,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으로 최근 10년(2003~12년)간 연평균 4.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옴. 국제 구리가격 하락세로 2013년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된 4.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 3월 취임하는 바첼레트 대통령은 교육개혁, 조세개혁, 정부개혁 등 3대 개혁 과제를 기반으로 '모두를 위한 칠레(Chile for All)'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나, 개혁 과제를 둘러싼 여야간 혹은 계층간 갈등이 예상됨.
-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투자확대 및 수출감소 등으로 최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및 D.S.R. 등 외채관련 지표가 다소 악화되었으나, 전반적인 거시경제지표 및 건전한 경제정책 운용능력 등과 함께 외환보유액 규모 및 지속적인 FDI 유입 등의 외채상환 능력 등을 감안할 때 대외지급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칠레의 국가신용도 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B1 등급을 부여코자 함.

조사역 허성희 (☎02-3779-5712)
E-mail: seonghee@koreaexim.go.kr